

안동 문화 **씨** FEEL

느낌이 있는 관광 | 2025 Spring VOL.69



Contents

2025 Spring VOL.69

안동문화
FEEL

느
낌
이
있
는
관
광

04



재미있는 안동

도산서원에서 안동의 봄을 느끼다

10



편안한 안동

다시 봄

16



새로운 안동

안동의 청년 기업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안동문화필은

안동을 여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 마음의 고향 안동을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문화를
전합니다.

안동이어야만 가능하고 안동이어서 가능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맛있는 안동

스시 고타야, 임청옥,
커피오브H스퀘어, 137커피스튜디오



깨끗한 안동

나와 안동과 흰 지의류,
그 외의 나머지



즐거운 안동

K-컬처를 만나는 곳!
3대 문화권 단지를 찾아서

발행인 이동원 발행처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편집책임 이지현 편집위원 김주호 원태경

주소 36605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월천길 300 대표전화 054-840-3400 팩스 054-857-9917 이메일 jeanlee@kfce.or.kr

홈페이지 www.kfce.or.kr www.maskdance.com www.tourandong.com www.andong.go.kr/theme

발행일 2025년 3월(통권 제69호) 편집 디자인판 제호(題號) 안동문화  FEEL 제자(題字) 장종규

* 본지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산서원에서 안동의 봄을 느끼다

/ 글 손대원(독도박물관 학예연구사)

/ 사진 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왕건을 도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고려말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몽진(蒙塵)했던 공민왕을 극진히 대접했던 곳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퇴계 이황으로 대표되는 유학의 성지로 자리매김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 바로 안동이었다. 그럼, 현재 안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 있을까? 안동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유교와 종가, 하회마을 등 역사 및 문화유산 관련에서부터 헛제삿밥, 간고등어, 찜닭 같은 음식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안동의 역사와 문화는 그 깊이와 폭이 매우 깊고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안동은 유학자에서 독립운동가까지 많은 인물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안동이 배출한 수많은 인물 중 퇴계 이황을 빼놓고는 안동의 역사와 문화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안동 역사와 문화는 퇴계 이황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퇴계 이황 자체만으로 안동의 중요한 역사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겸재 정선,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

이 글에서는 퇴계 이황이 남긴 수많은 문화유산 중 도산서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퇴계 이황은 낙향하여 1591년(명종 16)에 도산서당을 건립하여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사후 그를 추모하기 위해 1574년(선조 7)에 건립되었다.

서원은 학문 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하는 곳으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지금의 지방 사립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서원과 상반되는 곳이 바로 향교로, 지금의 지방국립대학과 같은 곳이다.

서원은 지역의 유생들이 공부하는 강학 공간과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산서원에는 어떤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강학 공간은 전교당(典教堂)과 박약재(博約齋), 홍의재(弘毅齋), 광명실(光明室), 장판각(藏板閣)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제향 공간은 상덕사(尙德祠), 전사청(典祀廳) 등이 있다.

먼저 강학 공간인 전교당은 강당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곳이자, 서원 관련 행사나 유림의 화합 장소였다. 무엇보다 전교당에 걸쳐 있는 ‘도산서원(陶山書院)’

편액은 당대 명필이었던 한석봉이 쓴 것으로 유명하다. 박약재와 홍의재는 동재와 서재로도 불리며, 전교당 좌우에 위치한 유생들의 기숙사이자 개인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동재인 박약재에 생활하는 학생들이 서재인 홍의재에 생활하는 학생보다 선배 였다고 한다. 광명실은 서책을 보관하는 일종의 도서관으로 그 현판은 퇴계 이황의 친필이라고 한다. 이 역시 동광명실과





퇴계 이황이 직접 쓴 현판



서광명실로 나뉘어져 있다. 장판각은 책판을 보관하는 곳으로 퇴계 이황의 문집, 유묵, 언행록, 도산십이곡 등 2,700여 장의 판각을 보관하였다. 현재는 목판의 보존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되어 있다.

제향 공간인 상덕사는 퇴계 이황과 그의 제자인 월천 조목의 위패를 봉향한 곳이다. 전사청은 제향 때 제물을 보관하는 곳이자, 준비하는 곳으로 건물이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동쪽은 제수를 준비하는 곳인 주청(酒廳)이며, 서쪽은 제기를 보관하는 제기고이다. 도산서원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향사(享祀)를 지낸다. 향사는 서원에 배향된 성현에게 지내는 제의를 말한다. 봄에 지내는 도산서원 향사는 음력 2월 중정일(中丁日)에, 가을에 지내는 추기향례는 음력 8월 중정일에 지낸다.





퇴계 이황의 매화 사랑은 너무나 유명하다. 퇴계 이황은 100여 수가 넘는 매화 관련 시를 남겼으며, 그중 91수를 모아 『매화시첩(梅花詩帖)』을 남겼다. 퇴계 이황이 매화를 사랑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속에 티끌 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과 더러운 풍속에 굴하지 않는 절개와 봄날 같은 희망의 상징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또한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제일 먼저 꽃망울을 틔워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꽃이기에 좋아했을 것이다.¹⁾

2019년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경사가 있었다. 한국의 수많은 서원 중 아홉 곳²⁾만이 최종 목록으로 선정되어 등재되었다. 그 중 안동 소재 서원인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두 곳이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안동은 유교의 본향으로 많은 서원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도산서원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가오는 봄! 도산서원에서 퇴계 이황이 사랑한 매화를 감상해 보는 것을 추천해 본다.



1 도산서원 누리집 참고(<https://www.andong.go.kr/dosanseowon>)

2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끝으로 퇴계 이황이 1569년 마지막으로 한양에 머물다 도산으로 돌아와 적은 시를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季春至陶山 山梅贈答 늦봄에 도산에 이르러 매화와 주고받다

寵榮聲利豈君宜 부귀와 명리는 어찌 그대와 어울리랴
白首趨塵隔歲思 풍진 좇은 지난 삶에 백발이 다 되었네
此日幸蒙天許退 지금은 다행히도 낙향 윤희 받았으니
況來當我發春時 하물며 오십이 내가 활짝 꽃 필 때였던가.

主答 주인이 답하다

非緣和鼎得君宜 매실주가 탐이 나서 그대 사랑함 아니라
酷愛清芬自詠思 맑은 향기 좋다보니 사모하여 절로 읊네
今我已能來赴約 나 이제 기약대로 그대 앞에 왔으니
不應嫌我負明時 꽃 핀 시절 농칠마정 허물은 말아주오





안동하회마을(사진 김선희)

다시 봄

/ 글, 사진 김상준

언제나 여행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고단한 인생을 뒤로하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힘을 되찾아 준다.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대마를 재배하여 삼배를 짜는 어르신들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대마밭을 수시로 경찰이 순찰한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다. 어느 가을날, 차를 타고 안동을 가로지르며 굽이 고고하고 고요히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펼쳐졌던 황금빛 벼들의 검은한 인사도 그리웠다. 굽이굽이 펼쳐진 강줄기의 아름다운 자연은 그야말로 위대했다. 서원 앞에 펼쳐진 고고한 물줄기와 드넓은 모래사장은 거대한 자연 속에 있는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분주한 일상에 부딪혀 상처난 속을 차분하게 만드는 편안함. 이번 여행은 그런 여행이다.

안동을 꽤 자주 들른다고 자부하지만 제일 유명한 관광지로 둘째 가라면 서운할 곳을 이번 여행길에 방문하게 되었다. 부용대를 통해 한눈에 내려다보는 굽이쳐 흐르는 강물 사이 하회마을은 더없이 아름다웠는데 막상 마을 안으로 진입하려니 외방인인 나의 정체성이 조금은 주저하게 만들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점심은 하회마을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 잡은 풍산읍에서 먹기로 했다. 풍산읍 풍산장터길 끝자락에 있는 갈국수가 좋을 것 같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공간으로 단출한 메뉴를 가진 조용한 식당이다. 매생이는 추운 겨울 유독 속이 뜨끈해지는 매력적인 음식이다. 화려하지 않은 상차림이지만, 뜨끈한 한 그릇과 제법 잘 어울린다. 맛있게 익은 전골에 밥 한 공기면 꽤나 추운 안동에서의 겨울도 제법 운치가 있다. 풍산장터를 시작으로 풍산읍을 조금 돌아보니 이야기가 있고 먹거리가 있는 곳인 듯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름다운 경성북도 유형문화재, 체화정이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아쉽지만 체화정은 다음을 기약해야겠다.



원조매생이칼국수



원조매생이칼국수(매생이굴전골)

풍산읍을 거닐다 한옥을 꾸며놓은 카페에서 쉬었다
가기로 한다. 사실, 든든하게 굴전골로 배를 채우고는
곧장 화회마을로 갈 생각이었지만 아름다운 한옥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공존하는 특별한 분위기에 이끌려
어느새 홀린 듯 카페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 작은 처마 밑 뒷마루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공간인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여러 서원과 같은 무게감이 있는 멋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스하게 햇살을 끌어안은 멋과
편안함은 아주 적절했다. 날씨가 추우니 햇살에
의지해 온기를 품은 마루에 앉아도 보고 추위에 못
이겨 내실에도 들어가 보며 한옥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을 만끽했다.

항상 이 마루의 유혹은 피해 갈 수 없다. 지난 여행
에서 들른 화천서원이 생각났다. 서원 강당 대청마루에
앉아 누각 넘어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면 아주 기분이

좋았다. 편안하고 따뜻한 나무 바닥은 어떠한가. 풍산을
카페 내부는 화천서원에서 만난 마루보다는 조금 더
친숙하게 편안한 장판이 깔려있었다. 방 한켠에서 몸을
눅이다 보니 이제는 정말 화회마을로 출발해야겠다
싶었다.



풍산장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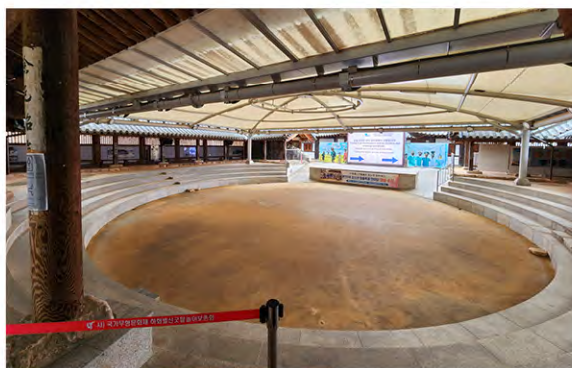
풍산 커피홀베이커리

풍산장터를 지나 낙동강이 감싸 안은 하회마을은 고운 금빛의 초가지붕이 가득했다. 나를 비롯한 관광객은 옛 장터에 온 듯, 마을 이곳저곳을 구경했다. 입장권을 구매하고 무료셔틀버스에 몸을 실었다. 걸음을 재촉하며 바쁘게 움직인 이유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보기 위해서다. 마을 주민의 무병과 안녕을 위한 신에게 드리는 제에서 신을 기쁘게 하고자 주민들이 벌인 가면극이란단다. 옛사람들의 신을 위한 놀음이 어떠할지 기대되었다. 애석하게도 도착하고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마당놀이인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동절기에는 대형 규모의 상설공연장이 아닌 소규모 지하 공연장에서 진행되었다. 멋진 마당에서의 공연을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소규모 공연장의 큰 장점인 공연자와의 가까운 호흡을 마음껏 느껴 보고자 했다.

작은 몸짓과 큰 몸짓이 어울려 들려주는 각 구성원의 이야기는 많은 여운을 남겼다. 무동마당으로 시작된 별신굿은 주지마당으로 백정마당, 할미마당, 파계승마당, 양반선비마당으로 이어지는 별신굿



안동하회마을 하회장터



하회별신굿탈놀이 지상 공연장



하회별신굿탈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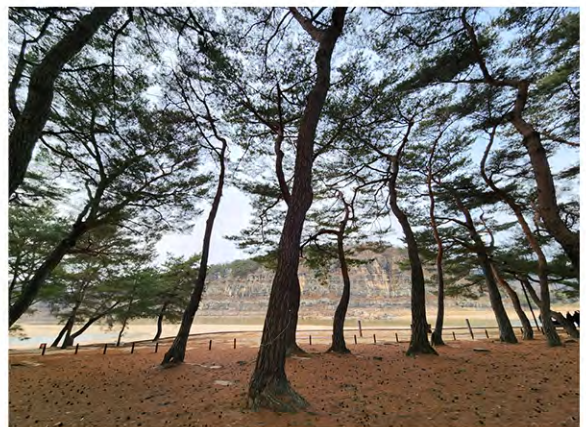


안동하회마을

탈놀이하는 여러 작품 들을 통해 어렵פות이 알고 있던 옛 상민들의 풍자와 해학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상민들의 풍자와 해학을 통해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며 양반들은 그러한 상민들의 해학과 풍자를 통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불만을 억제하여 상호 간의 조화를 꾀하는 독특한 장치가 하회별신굿탈놀이인가 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지배계층을 향한 신랄한 비판은 생각했던 것 보다 수위가 높다는 것이다. 신을 통하여 물리치고자 했던 마을의 재앙은 호환 마마만큼이나 무서운 상민들의 애환이었을 테다.

가까이서 직관하여 더욱 강렬했던 하회별신굿탈 놀이를 통해 한바탕 스트레스를 날리고 하회마을을 둘러본다. 이곳의 양반네들과 상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모습과 삶의 안녕을 신께 빌고 서로 풍자와 해학으로 조화를 이루어 갔던 것일까. 굽이쳐 흐르는 강에 둘러싸여 펼쳐지는 황금빛 초가지붕들의 물결. 그러한 황금빛 물결의 사이사이를 따라 걷다 보면 골목골목 누구를 마주칠지... 어느 기와집 고택은 웅장하고, 어느 초가집은 소담하고, 높다란 담이 있는

굳게 닫힌 곳, 소담한 담과 문이 활짝 열린 곳... 그렇게 골목을 거닐다 어느새 드넓은 모래사장을 둘러싼 웅장한 부용대가 눈에 들어온다.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마을과 자연이 만들어 놓은 절벽은 사뭇 잘 어울린다. 자연이 이곳을 내어준 것인가.



만송정에서 바라본 부용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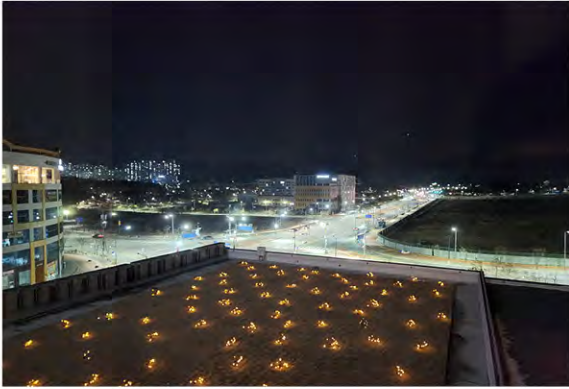


스탠포드호텔 안동

마을의 고즈넉한 모습에 어느새 숙소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다. 숙소는 하회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북도청권역에 새로 문을 연 스탠포드호텔 안동이다. 호민 저수지를 품은 아름다운 위치에 자리한 호텔은 처마를 머리에 이고 차분하게 여행에 지친 객을 맞이한다. 오롯이 우뚝 솟은 호텔은 새로 지어져 모든 것이 적당하게 깔끔했다. 넓고 쾌적한 지하 주차장이, 멋들어진 로비가 편안하게 반긴다. 곳곳 군더더기가 없었다.

남쪽으로는 호민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북쪽은 검무산 자락이 펼쳐져 있는 멋진 위치였다. 검무산 앞에 펼쳐진 도청 건물의 웅장한 자태를 보니 더 멋지게 보였다. 발길 닿는 데로 많이 걸었던 안동 여행의 대미에 이와 같은 편안한 잠자리보다 걸맞은 장소가 또 있겠는가. 복도는 깨끗한 카펫이 깔려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하루 혹은 한 주간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내니 따스한 침구가 나를 기다렸다. 그저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사실 아무것도



자담치킨

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역시 고픈 배가 주인이다. 호캉스의 국룰은 치킨 배달 아니겠는가. 이견은 받지 않겠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안락한 숙소에서 깨끗한 기름에 튀겨진 닭다리를 잡는다. 아주 편안하다. 상쾌한 아침은 역시 가벼운 운동이 만들어 준다. 호텔 내 헬스장으로 향했다. 규모가 아주 소담하다. 얼어붙은 호민지를 내려다보며 잠깐동안 러닝머신을 뛰었다. 그새 땀이 흘러 객실로 향해 샤워를 마치고는 다시 허겁지겁 나왔다. 1층 카페 스탠포드에서 조식 뷔페가 나를 기다린다.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드리우는 깔끔한 공간에서의 아침 식사. 골고루 많이도 먹었다. 음식은 마치 모든 종류의 아침을 다 가져다 놓은 것만 같았다. 한식, 중식, 일식이 다양하게 준비되었고 각각의 가벼운 혹은 무거운 음식들이 준비되었다. 볶음밥, 도가니탕, 브레드 푸딩, 베이컨, 스크램블 에그, 쇠고기 볶음밥, 덩쌈, 요거트, 햄, 수제잼... 그야말로

음식의 향연이었다. 하나하나 좋은 재료를 사용한 듯 아쉬운 점을 찾기 어려운 편안한 안동 여행의 환상적인 마침표였다.

안동 여행은 그 궤를 이름과 같이하는 묘한 여행이다. 탈춤 축제, 얼음 축제와 같은 축제도 즐겁고 신나지만, 천천히 봄이 움트는 것과 같은 잔잔한 이번 일정은 안동(安東), 그 자체였다.



스탠포드호텔 안동 헬스장



스탠포드호텔 안동 조식

interview. 안동의 청년 기업가

손으로 하는 수다 손수 다 만든다

손수다 공방 대표 **신소영**

/ 글 이지현
/ 사진 최지원

2024년 안동의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편안한 동쪽 나라라는 뜻을 품은
'안동(安東)'을 더욱 간절하게 기다리는 2025년 봄,
안동문화필은 새로운 기획으로
생동감 넘치는 기업가를 만납니다.
특별한 공방을 운영하며,
안동의 대표 기업인으로 성장하는
나이테를 천천히 그려나가는
손수다 대표, 신소영 씨를
안동문화필 봄호에서 환하게 맞이합니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 추운 겨울을 이제 막 지나치려는 가운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평화동에서 손수다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신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Q 평화동 이 골목 골목 가운데, 손수다 공방이라는 작고 예쁜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 공방을 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 보다는, 제가 어린시절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만들기였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EBS “만들어 볼까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매 시간 집에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 쯤엔 다음 시간 만들기 재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 주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 늘 다음 날 할 놀이의 준비물을 알려줬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께 재료 준비를 부탁했었어요. 제가 다음날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 쯤이면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재료로 방송을 보며 만들기를 할 수 있었고, 그 때부터 손으로 조물락거리며

뭔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집안 어른들이 “호작질 좀 그만 해~”라고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뭐 제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성인이 되어 남들처럼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기회가 되면 홈패션, 십자수, 비즈공예 등을 배우는 원데이 클래스를 취미처럼 늘 찾아다녔고, ‘나만의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져서 어찌면 가볍게 공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결국 대표님께서서는 좋아하고 즐기는 것으로 돌아가셨군요. 작업실을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방을 갖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걸 같습니다. 소소하게 작업실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으로 확장해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사업 이야기도 부탁드립니다.

A 손수다 공방은 “손으로 하는 수다”, “손수 다 만든다” 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처음 제가 공방을 오픈할 때의 마음을 담은 거죠. ‘이것 저것 만들고, 내 시간을 가지며 힐링할 수 있는 작은

작업실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만든 이름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미 생활로 배웠던 캔들과 천연비누로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공방을 오픈한 2020년 2월, 공방을 오픈한 지 일주일 채되던 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어요. 오픈빨이라고 하냐요? 이미 예약한 수강생들의 예약비를 모두 환불해 주고 약 2개월간은 그냥 문을 닫았어요. 금방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팬데믹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차라리 직장을 계속 다닐 걸 하는 후회도 참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단 생각에 3월 말부터 "비누 만들기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아는 지인에게 선물했고, 지인은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던 아이들과 집에서 비누 만들기를 했는데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엄마도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맘카페에 후기를 올려 주었고, 갑자기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고맙게도 이 비누 만들기 패키지로 오픈 일주일 만에 문을 닫았던 "손수다"가 안동에 이런 공방이 있었어? 라며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던 4월, 다시 공방을 오픈하자마자 원데이클래스 예약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수업을 진행하는 게 즐거웠어요. 왜, 마치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에게 이것 저것 자랑하듯이, '요런 재료도 있어요~! 이 향들 다 맡아 보세요~!' 라며 오히려 제가 신이 나서 수업을 했던 거 같아요. 제가 너무 즐겁게 수업을 즐긴 덕분인지, 한 번 다녀간 수강생이 친구에게 소개를 해주고, 또 가족에게 소개해 주고, 단골이 생기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초창기 손수다 공방을 찾아 주신 분들과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만큼 친해진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 지금은 라탄, 마크라메, 조향 수업까지 클래스의 범위가 넓어진 지금의 "손수다" 공방이 되었습니다.





Q 대표님의 애정과 즐거움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해 주셨었는데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할 수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창업을 하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아마 창업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A 저는 지금 하는 공방일과는 전혀 다른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시절 2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고, 졸업 후 안동에서는 중국어 관련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또다시 타지로 나가고 싶지 않고, 안동에서 제 삶을 영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동에서 컴퓨터학원을 다니면서 포토샵, 캐드 등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연스럽게 취직을 했어요. 그렇게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제가 원래 원하던 일이 아니어서인지 편한 직장이었지만 재미있게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때 마침 친한 친구가 사이버대학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 중이라고 했고, 사실 처음에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친구따라 같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땀고,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복지쪽 일이 책상에 앉아 서류 작업만 하는 것도, 오로지 대상자를 케어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서류작업, 케어, 프로그램 운영 모든 전반적인 일을 해야 하는 만능맨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보람 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을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스트레스를 풀고자 취미 생활로 캔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터라 캔들 다음에는 비누를 배우게 되었고, 어느 순간 그냥 나만의 작은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이것저것 만들거나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나처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가르쳐 주기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구요. 그래서 “손수다”라는 작은 작업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Q 정말 애정 어린 공간이군요. 재미있었던 일, 즐거웠던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 제 공방에는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도화지에 그려준 제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속 저는 예쁜 꽃 치마를 입고 있어요. 2020년 어느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여자 아이인데요. 10회의 공예 수업을 하는 동안 매 수업 시간마다 즐거워하고, 수업 중 심부름도 잘해주고, 열심히 수업을 듣던 친구였어요. 수업이 끝나는 마지막 날 너무 아쉬워하며 선생님 공방에 놀러가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한 번 놀러 오라고 했더니 어느 날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를 써서 놀러 왔어요. 편지에는



“너무 예쁜 손수다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고 공예 시간이 너무 좋다고 적혀있었어요. 그날부터 제 공방에는 친구가 그려준 그림이 붙어 있는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보다 보니 제 얼굴의 반이 마스크더라고요. 덕분에 눈은 아주 크고 긴 속눈썹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난 당시는 한참 코로나 펜데믹이 유행하던 시기라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의 마스크 벗은 모습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을 거예요. 약간 울컥 하는 마음도 들고, 하루에 한 시간씩 10번 본 저의 수업을 너무 사랑해준 친구가 참 고맙기도 하고 해서 2년이 지나도 떼지 못하는 그림 선물이에요. 가끔 이렇게 센터나 학교 등에서 만난 친구들이 길거리나 다음 해 다른 학교, 교실에서 만나 “손수다 선생님~”이라고 아는 체를 하거나 반갑게 인사해 줄 때,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Q 그래도 창업이라는 게 늘 즐거울 수 만은 없지 않겠어요? 힘들어서 정말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죠?

A 처음 “손수다”를 시작 할 땐 ‘한달에 100만원만 벌어도 너무 좋겠다~. 그 정도만 벌어도 나는 충분해.’라는 소소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사람이 참... 조금 잘 되니 욕심이 나서 사업이 번창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 좀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수업이 많아질수록 필요한 재료들이 많아지고, 공예 분야가 생각보다 유행에 민감해요.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공예를 배우는 투자를 해야 해요. 공예 강사들 사이에서 말하는 “공예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의 꿈이 좀 더 커진 것도 같구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방들이 1월~ 3월, 학교·관공서 등이 새로운 한 해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비수기라고

해요. 수입이 거의 없어요. 가끔 공방으로 방문해주시는 원데이 클래스 운영으로만 수입을 얻는 기간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때가 되면 “아... 월급 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마음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공방을 운영한 첫 해는 이 시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뭘야, 왜 손님이 없어 나 이러다가 망하는거 아니야?”라며 엄청 걱정만 하다가 어떻게 지나갔는데, 2년 차가 되면서부터는 이 시기에 새로운 한해를 잘 보내기 위해 새로운 공예를 배우기도 하고, 올해 진행할 공예프로그램 샘플 작업도 하고, 공방의 재료들을 정리정돈하는 정비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마치 베테랑처럼 공방 비수기를 슬기로운 비수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Q 이런 저런 노하우들이 많이 쌓이신 것 같네요! 앞으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신가요?

A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향 마케팅”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적용하고자 하는 물결이 생겨났어요. 이미 대기업들은 “향기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생각으로 향 마케팅을 이용해 고객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죠. 그래서 24년부터 손수다 공방도 향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난 해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주관했던 “청년 스타트업 관광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안동 대표 관광명소 5곳을 떠올릴 수 있는 특색있는 향으로 종이 방향제를 제작하였습니다. 각 명소별 자체 디자인한 일러스트 그림과 향을 매칭, 잊혀지지 않을 향 이름으로 5종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종이 방향제는 휴대성이 용이한 카드 사이즈로 가방, 지갑,





주머니에 넣어 향수 대용으로 사용도 가능하며, 끈을 연결하여 차량, 옷장, 신발장 등 향이 필요한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 후 발향이 끝난 종이방향제는 책갈피로 재사용이 가능하구요. 앞으로 안동 내 관광기념품 편집샵 등에 입점할 계획이며, 5종을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안동의 명소들을 종이방향제 시리즈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동 여행 후에 손수다 공방에 들러 여행지에서 느낀 감정, 추억, 기분을 80가지의 향 원료를 통해 직접 향수를 만드는 조향 수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향수 체험은 단순히 원데이클래스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관광객들이 일상 생활에서 향수를 사용하면서 안동에 대한 좋은 기억과 감정을 회상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안동의 추억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며 새로운 관광객이 또 안동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2025년 손수다의 활동이 기대되네요! 대표님의 삶과 손수다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만들기, 공예를 가르치고 작품을 만드는 공방 운영을 하고 있는 저는 그 행복한 사람들 중 하나겠죠? 가끔 수업 준비에 힘들 때도 있지만, 앞으로도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행복한 공방장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공예는 많이 만들어질 거고, 저도 아직 배워야 할 공예들이 많을 테니까요. 손수다 공방이 다양한 공예



수업들로 꽉~채워지는 날까지 재미있게 공방을 꾸려 나갈 겁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살며 행복해지'가 제 삶과 업의 비전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네요.

Q 끝으로 대표님과 인터뷰가 안동문화필에 실리는 만큼 안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A 저는 안동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대학교를 안동에서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안동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성인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기회가 많았지만, 고민 끝에 매번 안동에 남게 되었습니다. 안동은 저에게 '편안함', 그 자체입니다. 너무 변화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적당한 도시'.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안동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희 공방에 와서 안동 여행을 담아가는 "향기로 기억하는 안동, 나만의 여행 향수"를 직접 만들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즐거운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긴 공예품들로 가득한 손수다 공방. 그 공방을 지키는 공방장, 신소영 대표와의 인터뷰는 바쁜 현대사회의 속도와 결을 달리하며 천천히 유명하듯 동심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는 듯 했습니다. 편안한 안동의 향기를 담아서 안동 여행을 기억할 분들이 점점 늘어날 그림을 그리며 안동문화필 봄호의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따스한 봄의 향기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안동의맛

글, 사진 이희철

스시 고타야



스시 고타야는 22년 경력의 두 오너 셰프가 운영하는 스시 오마카세 전문점이다.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원활한 매장 운영을 위해 예약제로만 운영된다. 두 가지 금액대로 나뉘어 있으며 런치 오마카세는 디너보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다. 7자 형태로 꺾인 바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외투나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도 제공된다. 오마카세 코스의 시작은 일본식 계란찜 차완무시를 시작으로 타다끼, 생선회, 스시, 술밥 등이 순서대로 제공된다. 또한, 고객들은 앉은 자리에서 셰프가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으며, 메뉴가 하나씩 제공될 때마다 각 음식의 특징과 먹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코스 마지막에 나오는 보리새우술밥을 적당히 먹은 뒤, 남은 밥을 따뜻한 오차즈케 육수에 말아 먹으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식사 후 대미를 장식하는 디저트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제공된다. 맛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스시 오마카세를 즐기고 싶다면 스시 고타야를 방문해 보자.



-  **주소** 경북 안동시 강남1길 133-17
-  **전화번호** 0507-1374-8031
-  **영업시간** 12:30~22:00 예약제 운영
(브레이크 타임 15:00~17:30)
-  **휴무일** 매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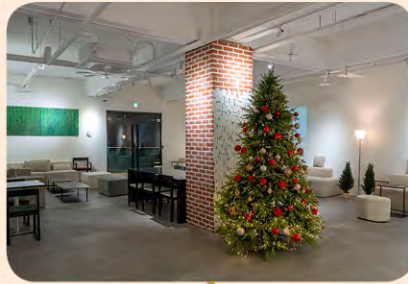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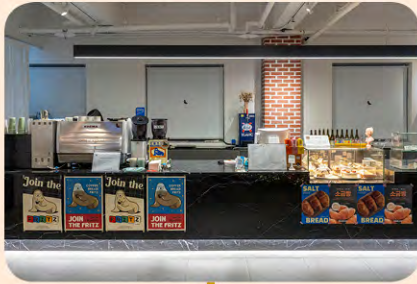
임청옥

임청옥은 원기 회복에 좋은 풍기 인삼이 들어간 갈비탕 전문점이다. 정갈한 반찬과 큼직한 갈빗대가 들어간 갈비탕은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특히 여기에 들어간 풍기 인삼은 조직이 단단하고 인삼 향이 강하며, 사포닌 함량이 높아 더욱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한우 불고기는 시금치를 아낌없이 넣어 맑고 깔끔한 국물에 은은한 단맛이 배어 있다. 부드러운 고기에 간이 잘 배어 있어 반찬 없이도 흰 쌀밥과 함께 즐기기에 좋다. 또한, 무더운 여름에는 계절 메뉴로 시원한 냉면을 판매한다. 명태회가 곁들여져 새콤달콤한 감칠맛을 별미로 즐길 수 있다. 인근에 독립운동의 상징인 안동 임청각이 자리하고 있어 함께 방문하기 좋다.



-  **주소** 경북 안동시 임청각길 1 2층
-  **전화번호** 0507-1417-7074
-  **영업시간** 11:00~20:00
(브레이크 타임 15:00~17:00)
-  **휴무일** 매주 월요일





커피오브H스퀘어

커피오브H스퀘어는 용상동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스페셜티 커피와 베이커리 전문점이다. 상가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해야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카페 내부는 꽤 넓고 테이블 간격이 넉넉해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특히 좋은 장소이다. 시그니처 메뉴인 '허니비 화이트'는 플랫 화이트 커피 위에 벌집 꿀이 올라간 특별한 음료이다. 취향에 따라 벌집을 그대로 씹어 먹거나, 꿀을 커피에 녹여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다. 매장에서 직접 구운 베이커리를 곁들이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은은한 음악과 함께 한적한 분위기를 만끽하기 좋은 커피오브H스퀘어에서 쉬어가 보자.



-  **주소** 경북 안동시 길주길 93 3층
-  **전화번호** 0507-1356-1284
-  **영업시간** 11:00~21:00
-  **휴무일** 연중무휴

137커피스튜디오

137커피스튜디오는 과거 주택을 개조하여 탄생한 감성적인 카페이다. '137'은 과거 음악 작업을 하던 시절의 활동명에서 따왔다고 한다. 당시 작업실에 놀러 온 친구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나눈 대화와 따뜻한 기억들이 이곳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카페는 용산안동병원 뒤편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 2층짜리 붉은 벽돌집을 리모델링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건물 전면에 큰 유리창을 설치해 자연스러운 채광이 내부로 스며들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과 우드톤의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며, 곳곳에 놓여 있는 초록 식물들이 공간에 생기를 더한다. 음료와 함께 주문한 카다멈 롤은 인도가 원산지인 향신료 '카다멈'이 들어가 독특한 풍미를 자랑한다.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와 함께 즐기면 더욱 조화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 일상의 바쁜 흐름 속에 잠시나마 여유를 찾고 싶다면 137커피스튜디오를 방문해 보자.



-  **주소** 경북 안동시 전거리1길 25
-  **전화번호** 0507-1372-7078
-  **영업시간** 09:00~22:00
-  **휴무일** 네이버 또는 인스타그램 공지



나와 안동과 흰 지의류, 그 외의 나머지

/ 글, 사진 김국희

낮선 자의 익숙한 친밀감

2021년 여름, 경북 안동으로 이사 온 후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전라도가 고향인 거 들키지 말고, 사투리도 쓰지 말고.” 우스갯소리도 잘 한다며 **하하하** 웃었지만 일말의 걱정이 없었다고는 못 하겠다. 오래된 도시 괴담이면 좋으련만, 역사의 한 편에 기록된(+현재 진행형) 묘한 사건과 감정들은 없는 척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완전히 다른 모드로 지내기로 했다. 생명과 사랑, 지혜라는 그보다 더 큰 말에 몸을 기대 살자, 새삼 마음먹었다. ‘낮선 자’이지만 어디에서나

통하는 ‘집은 친밀감’으로 모두를 대하자. 마침, 커다란 배 안에는 이미 어마어마한 존재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짐을 풀기도 전에 둘째를 낳았기에 코로나로 기승인 여름은 고역이었다. 모든 바람을 조심하라는 때였지만 선봉대로 외출을 감행했다. 이사 후 처음으로 마음이 빼앗긴 아름다운 장소였다. 갓난아기는 강바람을 쐬고, 첫째는 곳곳에 돌아난 온갖 버섯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고요히 흐르는 강과 이끼, 버섯, 흙 위로 드러난 나무뿌리를 아주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물, 풀과



이사 직후 만석의 몸으로 방문한 병산서원



첫째 아이 이모다가 선몽대에서 찾은 버섯들

더욱 가깝고 친하게 지내자는 다짐을 되새길 필요도 없이 매일의 풍경이 완벽하고 완연했다.

비슷한 풍경의 결합이 전하는 묘한 진화의 감각

낮선 곳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다.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여유가 없기도 했지만, 연결된 것이 오직 핏줄과 자연 밖에 없다는 감각이 주는 편안함이 있었다.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경북도청 앞 맨발 산책로에 다녀오거나 수유, 요리 외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2년이 되어서야 안동에 내려온 가장 큰 이유였던 '농사'를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 관찰하고 인터뷰하며 농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채집했다. 그런데 곧, 과정에서 만나게 된 감각이 너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땅 위에 내 몸을 놓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게 처음의 생각이었는데,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모든 순간이 밀도 끝도 없이 너무 그냥 좋기만 해서 이래도 될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원래 목적인 것이 무엇이였는지도 잊은 채, 물속 구르는 자갈처럼, 빗물 머금은 이끼처럼 그다음에 해야 할 것 같은 일들을 그저 마주했다. 밭 위에 함께 서 있을 예술가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땅 위에서의 감각을 전시로 만들고, 자연 안에서의 리트릿(Retreat)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남 장흥군에서 살던 90년대 초 어린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하회마을 하하호호 비밀기지 만들기 프로그램



대마밭 레지던시에 참여한 윤대륜 작가



오랜 세월 하회 마을의 기와에 살고 있는 지의류와 이끼들



미래에서 온 질문이자 명사이며 동사인 지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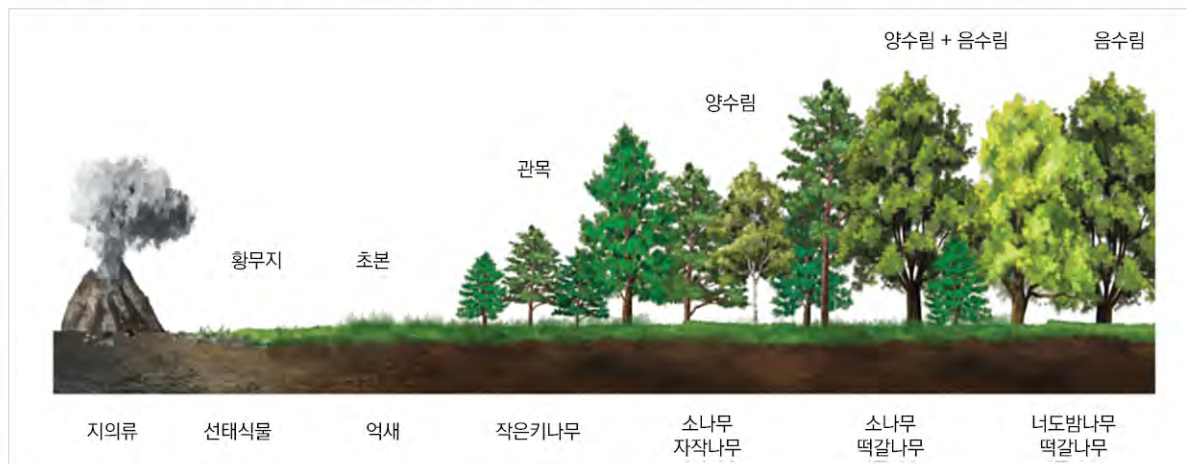
23년에는 하회마을에 작은 집과 밭을 구했다. 아름다운 초가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북촌댁 기와에 딱 붙어 살던 지의류와 운명처럼 만났다. 사진을 찍고 보니 22년 처음 하회마을을 산책하며 우연히 마주쳤던 바로 그 친구였다. 이쯤에서 지의류의 아름다운 생물학적 설명을 되짚고 싶다.

같이 산다는 전제로 발(탄)생하는 존재

‘땅의 옷’. 지의류(地衣類)는 한자로 땅 지(地)에 옷 의(衣)를 사용한다. 나무껍질이나 바위 위에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말이 더욱 온당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다시, ‘지구의 옷’이라고 불러 본다. 이 성긴 옷이 나중에 부송부송한 지구의 털(나무)까지 창조하는 씨앗

역할을 하게 되니 말이다. 나는 지의류를 둘러싼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며 자주 웃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이토록 애절하고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는 생명체가 또 있을까. 지의류 자신이 광합성을 하는 조류와 균류(곰팡이)가 결합한 상리공생체라는 것뿐 아니라, 숲의 생명이 약동하는 시작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생명체... 둘이라 더 쉼 걸까. 빙하와 용암 근처, 심지어 우주정거장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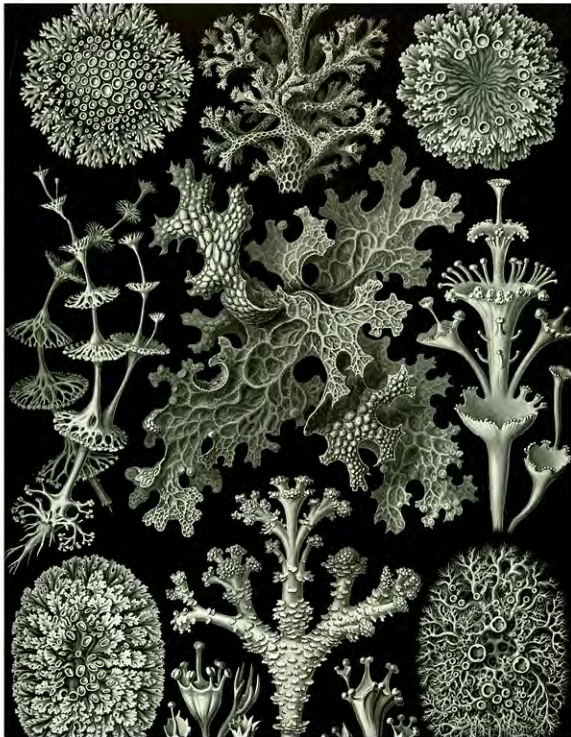
처음 지의류 연구자들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 게 기여하거나 기생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여겼지만, 둘은 서로의 생존과 공존을 위해 분명한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극한 ‘살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애초에 (두) 존재가 나뉘어 있으면 지의류가 탄생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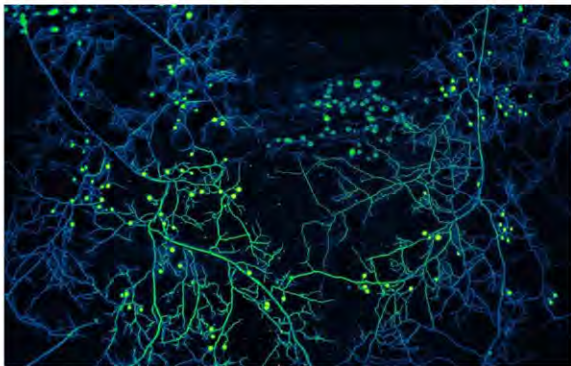
자료 사진: 국립 수목원 제공³⁾

3 화산 폭발 이후 굳은 용암 위에 지의류가 토양을 만들기 시작해 숲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수 없다는 데에서 자꾸만 마음이 아렸다. 전혀 다른 형태와 성분, 내용을 가진 존재임에도 개별로는 '완전히 없다'가, 갑자기 두 존재가 함께 태어남으로써 '각자이며 함께인 삶이 시작'되다니. 이런 드라마틱한 생이 있을까. 하지만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 물과 돌, 풀과 소, 나무와 버섯, 인간과 균사체들까지. 과연 그렇지 않은 생이 대체, 있는가?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 - Kunstformen der Natur (1904), plate 83: Lichenes



균사체 연결망의 고해상도 이미지.
사진: 로레토 오야르테 갈베스(Loreto Oyarte Galvez)

분명히 독립된 형태와 완전히 다른 속성으로 그어 놓은 선이 갑자기 희미해진다. 하회마을을 기와 위 지의류의 둥글고 납작한 끄트머리와 내 손끝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노을 진 하늘과 강의 배경마저 완전히 녹아 내린다. '여기 살아라. 잘 키워 봐라. 괜찮다' 말해주던 편안한 동쪽마을(안동)의 가르침을 가만히 입안에서 굴린다. 그러자 과거에서 이제 막 도착한 말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채 숨을 죽인다. '내가 여기에 살아도 되나요? 잘할 수 있을까요? 불안해요.' 그것들은 마치 내가 먹은 적 없는 마음이거나 본 적 없는 기억 같다.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펼쳐진 나날은 상상보다 펍 슬프고 고단했지만, 아이들과 던진 수많은 물수제비와 발독에서 붙여온 도깨비바늘은 서로의 몸과 마음 어딘가 달게 새겨졌다. 그렇게 조금씩 회복의 시간을 지나 23년과 24년의 나는 바야흐로 '살맛'이 나기 시작했다. 차와 초와 춤과 책으로 치유의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초집이라 이름 붙인 작은 초가집에서 아이들과 커다란 동지를 만들고,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만송정 한 켠의 나무를 가만히 안기도 했다. 그런 디자이너⁴⁾ 윤호섭 선생님은 마을회관에서 한참 동안 티셔츠에 그림을 그려 주셨고, 김성원 선생님은 하회의 담과 봉당 등을 직접 수리하는 전통 건축 워크숍을 진행해 주셨다. 무엇보다 하회마을 보존회를 이끄는 분들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의 면면을 찬찬히 바라보는 시간도 가졌다. 그렇게 천천히 삼가는 마음으로 마을을 배웠다. 지나고 보니



하회마을 하하호호 비밀기지 만들기 프로그램: Lichenes

4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하회마을의 돌담을 살피고 자연재료를 집을 돌보는 일상 기술 워크숍
김성원 선생님과 "땅과 발 사이"



(주)숲으로숲으로와 함께 진행 한 치유 프로그램 "하회마을 길 따라 마음 따라"

얼마나 살았느냐보다는,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했느냐가 결국 전부였다. 몇 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찰나의 오롯한 진심이 단단한 연결을 만들었다. 바로 그 순간 지의류 안의 두 존재처럼 완전히 다른 새 삶이 시작되었다. 농사(열매)나 작업(예술), 혹은 교육과 사업. 목적과 결과가 뚜렷하지 않을까 봐 역으로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모든 면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렇게 남은 나머지들은 불품없거나 아예 형체가 없고, 이름 붙이기조차 면구한 것들이었다. '뭇보다 과정이 중요하지!'라고 할 때의 과정조차 요즘엔 결과로 불리기 참 좋은 모양인데, '과정 사이의 것', 혹은 '찌꺼기 같은 것'에는 대체 어떤 말을 붙여야 할까.

지의류는 각 부분의 합이라기보다는 그 부분 사이의 교환이다. 지의류는 안정적인 관계의 네트워크이며, 지의류 회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명사이면서 동시에 동사다.⁵⁾

"그것은 결코 이것을 상상한 적 없었지만, 결국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서만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오만 잡것들이 먼지처럼 푹푹 날렸다. 이것은 손가락 사이를 보기 좋게 빠져나가다, 뒷목 땀자국 틈에 살짝 끼어있던니는 감작할 새 몸 안으로 슬쩍 녹아 들어가 버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농사를 제대로 지은 적 없다고 말하고 나서야 농사를 조금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내가 농사랑 뭔가 '한 적'이 정말로 없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농사랑 제대로 놀아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말만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실제로 그럴듯했다. 아주 마음에 들었다. 밭과 땅 위에서 있던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 선생님 특별 초청. "하회의 회화"



땅에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첫 토제 "추수의 춤"

5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 멀딘 셀더레이크, 김은영 옮김, 아날로그, P.159.

그 서투르고 어설픈 모든 순간이 참으로 좋았다. '낭만 가득한 목가적 풍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속아 넘어온(?) 이들과 함께 재밌게 교류하는 땅 위에 선, '이방인이자 농부이자 작가이자 엄마인 자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순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미 지의류이고 나무이고 균사체인데, 너는 그것이고 나는 이것이 될 수 있을까. 단어와 단어 사이, 너와 나 사이에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다. 그리고 그 역겹의 시간에서 지의류는 천천히 자란다. 부지런히 광합성을 하는가 하면 몸을 지탱하고 영양분을 전달하면서, 너와 내가 완전히 다른,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상태로. 경계를 녹이고, 형식을 뒤섞고, 내용을 허물며.

스프리빌이라는 과학자는 '지의류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라는 논문에서 지의류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리타분한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이한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지의류의 정체성은 '미리 정해져 있는 답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스프리빌은 "인간의 이분법적 사고는 답이 이분법적으로 나오지 않는 질문을 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 챕터의 말미엔 몇 논문의 저자들이 이렇게 선언했다고 써 있다. "개체는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의류입니다."⁶⁾

하회를 감각하는 시간을 지나며 나는 안동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미래에서 도착한 여행자의 눈으로, 과거 류성룡 선생의 손으로, 지금 무엇이든 한다. 이것이 바로 예코 투어리즘, 공동체적 성장, 소멸 지역 살(리)기이자, 사랑과 생명, 평화가 아닐까. 추상적인 단어에서 멀어지고자 농사까지 짓게 된 마당의 나는, 이제 그 단어를 써야만 빠르게 전달되는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그것'을 위하는 모든 시간과 그것을 제외한 찌꺼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처음에 상상했던 것은 아니지만, 겪고 보니 사무치게 원했던 것이었다.

내가 하회를 사랑하니, 하회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 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닌가!) 우리는 생태학, 예술, 환경, 문화, 역사, 전통, 유산, 공동체 같은 커다란 말 사이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 사이에서 온갖 잡것들과 손을 잡고 **하회하회** 웃는다.



하회의 빛

태어나기로 마음 먹은 생명은
물 아래에서 흙을 만지고
부드럽게 떠올라
활짝 핀 손바닥을 내민다.

동그렇게 굽이진 물길을 따라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면
배꼽부터 시작된
고운 노래가 흐른다.

초가 끝에 맺힌 긴 슬픔도
미리 모셔 온 불별과
부드럽게 몸을 허물고
대지의 씨앗을 안아준다.

휘어진 눈꼬리와
숫아오른 광대 위로
맑은 향이 불어올 때,
연결된 생들은 긴 춤을 추고

어두운 밤의 강
단단한 별빛이 서로를 끌어안으면
돌과 기와 사이에 넣어 둔 흰 솜 하나가
온 땅 가득 퍼져나간다.

- 2025년 새해를 맞으며 김국희

6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 알딘 셸더레이크, 김은영 옮김, 아날로그.

K-컬처를 만나는 곳! 3대 문화권 단지를 찾아서



/ 글, 사진 한국정신문화재단



3대 문화권 사업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국내 유일하게 컨벤션 센터, 박물관, 테마파크가 함께 조성되어 운영되는 문화·생태·관광 복합 문화관광단지이다. 지난 2021년에 준공되어 안동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핵심 공간 3곳(한국문화테마파크,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선성현문화단지)은 2025년부터 새로운 운영자인 한국정신문화재단과 함께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다.

1 한국문화테마파크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안동호 배경의 수려한 자연 속에 한국 고유의 풍경과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유교와 호국, 역사와 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들이 함께 어우러져 안동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닉스 메뉴⁷로 선정된 곳이다.



⁷ MICE 행사 개최 도시의 고유한 컨셉이나 그곳에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뜻으로 통용되며 MICE 전문시설(컨벤션센터, 호텔)은 아니지만 MICE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를 통칭한다.



연면적 13,587㎡의 공간에 조선 시대 산성마을 컨셉으로 인센티브 관광, MICE 이벤트와 연계할 수 있는 어드벤처 챌린지, 상설 공연, 전통놀이 및 체험 공방, 저잣거리, 연중 상시 이벤트 등 인터랙티브한 체험 시설과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테마파크는 산성마을과 연무대 공간으로 크게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산성마을에는 한옥 건물인 전통극공연장, 설화극장 그리고 야외 산대극장이 있으며, 3D로 즐기는 수성(守城) 전투게임과 국궁 활쏘기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의병체험관이 핵심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의병지휘소에서는 각종 회의, 전시,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종루광장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야외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다. 전통한복과 양장을 입어 볼 수 있는 선비숙녀변신방, 안동 선비의 정신을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선비체험관, 다양한 전통놀이와 보드게임을 즐기는 전통놀이장, 비격진천뢰를 조립하고 방을 탈출하는 폭탄탈출방 등 한옥마을과 다양한 체험들이 가득한 공간이다. 특히 일부 시설들은 전대 시설로 문화 체험 공간과 먹거리, 매점, 쉼터, 기념품점 등이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시대를 테마로 한 산성마을과 연무 마당 프로그램은 물론 계절별(봄: 꽃, 여름: 물과 공포 체험, 가을: 조선 시대, 겨울: 눈과 얼음), 월별 테마를 가진 이벤트

행사,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공간 조성 및 거리 퍼레이드와 난장 및 공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시대 의병이 되어 도깨비들과 함께 개성 만점 의병 훈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융복합 디지털 스포츠 테마파크인 『놀팩』공간도 함께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체험이 중심이 되는 놀팩공간은 현장 체험 학습에 최적화된 안동 의병을 소재로 한 디지털 역사이팅 테마파크이다. 첨단 RFID(사물을 식별하는 기술)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정보를 입력하면 희망 난이도에 따라 훈련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각종 신체 능력을 요구하는 의병 훈련 콘텐츠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병 훈련 성적과 그 과정에서 소모한 칼로리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미가 함께 있는 공간이다. 교육과 스포츠가 결합한 24종류의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의 구성 요소 등을 적용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대상을 몰입시키는 것)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지구력, 순발력,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 유연성 등 온몸으로 즐기는 유쾌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 2층의 놀판 면적은 약 2,000평으로 1층과 2층에 게임시설과 휴식 공간은 물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공하고 있다. 놀판 인근 야외 연무 마당에서는 스릴 만점 고공 어드벤처 체험과 미로찾기 미션 게임을 할 수 있는 미로전도 즐길 수 있다.

2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안동시 마이스(MICE) 산업

안동의 자부심, 마이스 산업의 중심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최첨단 컨벤션 시설로, 지역의 마이스(MICE)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센터는 연면적 22,800㎡에 달하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로 국제회의의 규격에 맞춰 최대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홀과 총 13개의 중소 회의실로 8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다목적 전시홀과 최신 음향 및 영상 장비를 갖춘 미팅룸 등 전국 컨벤션센터 중 가장 최신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자연채광을 살린 실내 설계와 전통적 미를 반영한 외관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2025년,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민간 수탁 운영에서 한국정신문화재단 직영 체제로 전환되며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안동시의 문화예술, 축제관광, 관광거점도시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마이스 사업 등을 총괄하는 문화컨트롤타워로서 안동국제 컨벤션센터를 본격적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관 3주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국제적 도약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개관 3주년을 맞이하며 본격적으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의 제26회 세계대표자대회와 Korea Business EXPO Andong이 동시에 진행되며 국내외 경제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세계인문학포럼(교육부 주관) 등의 행사가 안동에서 개최되어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히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세계인문학포럼은 안동의 정신문화와 인문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 관광 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안동의 전통과 자연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안동 마이스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안동컨벤션뷰로

안동컨벤션뷰로는 지역 마이스 산업의 중추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안동컨벤션뷰로는 지역 내 마이스 산업 관계자들을 하나로 묶는 "안동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운영하며, 효율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기관, 그리고 관광업체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안동을 매력적인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 잡게 하고 있다. 또한, 지역 대학생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마이스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마이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포터즈는 각종 국제행사 운영 보조, 홍보 활동, 참가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있다. 마이스 서포터즈는 지난해 2024 Korea MICE EXPO(인천 송도컨벤시아)를 비롯하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까지 2,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안동시의 마이스 산업을 홍보하였다.

안동,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의 도약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선포한 것을 계기로, 경주를 비롯한 경북의 관광지와 주요 마이스 산업 거점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경북 지역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의 운영이 더욱 기대된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컨벤션뷰로는 이러한 흐름 속에 지역 전통과 현대적 시설을 조화시켜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도시 안동을 넘어서, 경북 북부권 마이스 거점도시로의 안동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3 선성현문화단지

도산권역 첫 번째 관광지, 선성현문화단지

안동의 북쪽,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으로 이어지는 도산권역의 첫 번째 관광지, 선성현문화단지는 예끼마을과 선성현수상길로 많이 알려져 있다. 선성현문화단지는 오랜 역사 속에 아름다운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지만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이 이진된 슬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 선성현문화단지가 2025년 새봄을 맞아 큰 기지개를 켜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따뜻한 봄소풍을 체험할 수

있는 예끼마을 봄축제를 시작으로 여름에는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상큼 여름, 시원 선성'을, 가을에는 예술의 끼가 넘치는 예끼 아트페어를, 겨울에는 겨울민속놀이가 생각날 즈음, '그 때, 그 선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랜 안동의 역사를 간직한 선성현문화단지

선성현문화단지는 옛 관아를 재현한 곳으로 고려 시대와 신라의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곳이다. 안동 예안의 옛 지명인 '선성(宣城)'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선곡 현감 이능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 지역의 이름을 선곡에서 선성으로 개칭하였으며 선성현으로 승격하였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성현의 옛 관아가 복원되었다.

선성현문화단지 안에는 손님을 대접하던 공간인 객사(客舍)와 고을의 수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헌과 군민당, 내아, 군사를 담당하는 장교들의 집무실인 군관청, 무기와 잡물을 보관하는 창고인 관장, 죄인을 다스리는 형리청 등이 복원되어 있다. 선성현 아문 맞은편으로 계단을 내려가면 선성현문화단지 역사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선성현 지명의 유래와 예안의 인물들, 지역의 향교와 서원을 비롯해 선성산성의 가치로 출토 유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산책길로 좋은 선성산성은 영남 지역에서 안동을 거쳐 영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배후에 있었던 방어와 행정 목적의 치소성(治所城)으로 산 정상에 능선에 테를 두르듯 성벽을 쌓았으며 7세기 통일신라시대를 전후해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깊은 곳으로 2015년 문화재 조사 결과 성문터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구들이 발견되면서 선성산성을 확인하였다.

안동호 위를 걷는 기분 좋은 산책길 선성수상길

선성수상길은 안동호 위를 걸을 수 있는 물 위의 길로 자연을 벗 삼아 걸을 수 있는 안동의 명품길로 인기를 얻고 있다. 선성 수상길 중간 지점에는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예안국민학교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아련한 추억을 선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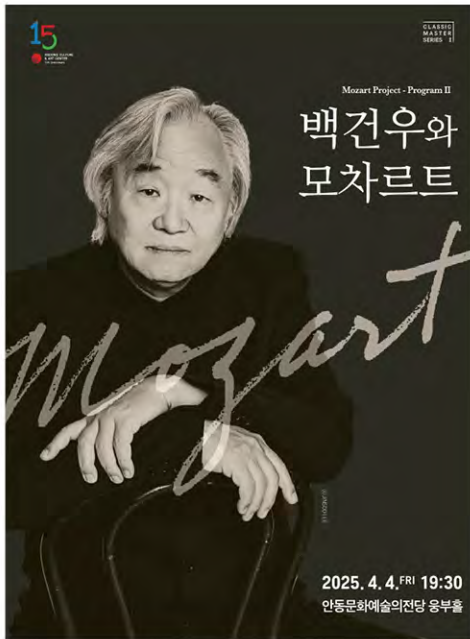
진한 나무 냄새와 깔끔한 환경, 선성현한옥체험관

서부리의 야트막한 언덕 아래 자리 잡은 선성현한옥체험관은 경북 3대 문화권(안동의 유교, 고령의 가야, 경주의 신라)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곳으로 30명 수용이 가능한 세미나실과 총 10개의 한옥이 자리잡고 있다. 한옥으로 지어져 진한 나무 냄새와 깔끔한 환경을 자랑하는 선성현한옥체험관에서 행복한 하루를 즐겨보자.

선성현문화단지 계절별 주요 프로그램(안)

계절	프로그램명	일정	주요 프로그램
봄	예끼마을 봄축제 (주제: 봄소풍)	4.25(금)~4.27(일)	봄 전시 / 봄소풍 체험 / 서부상회 레트로 전시 / 예끼핸드메이드 장터 / 도자기, 천연염색 전시 등
여름	상큼 여름 시원 선성 (주제: 레트로)	7.18(금)~7.20(일)	부채만들기체험 / 수박서리체험 / 뽕배바지 포토존 /레트로 여름방학 전시 등
가을	예끼아트페어 (주제: 예술)	9.20(토)~9.28(일)	회화, 조각 전시 및 판매 등
겨울	그 때 그 선성 (주제: 추억)	12.5(금)~12.7(일)	겨울민속놀이체험 / 복주머니 만들기 체험 / 복주머니 트리 포토존 / 가래떡 구이 및 떡메체험

● 프로그램의 내용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4.(금) 19:3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



4. 25.(금) 19:30 / 4. 26.(토) 17:0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



5. 1.(목) ~ 5. 6.(화) 6일간
중앙선1942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



5. 9.(금) 19:3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



| 주최·주관 한국정신문화재단 | 후원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초대합니다!

*We invite you to Andong City: The Capital of Korean Ethical Philosophy,
Inherit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Education!*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오시는 길

버스

서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부산 부산동부터미널(노포동) ▶ 안동
대구 동대구터미널 ▶ 안동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 안동

기차

서울 서울역 ▶ 안동
청량리역 ▶ 안동
부산 부전역 ▶ 안동
대구 동대구역 ▶ 안동